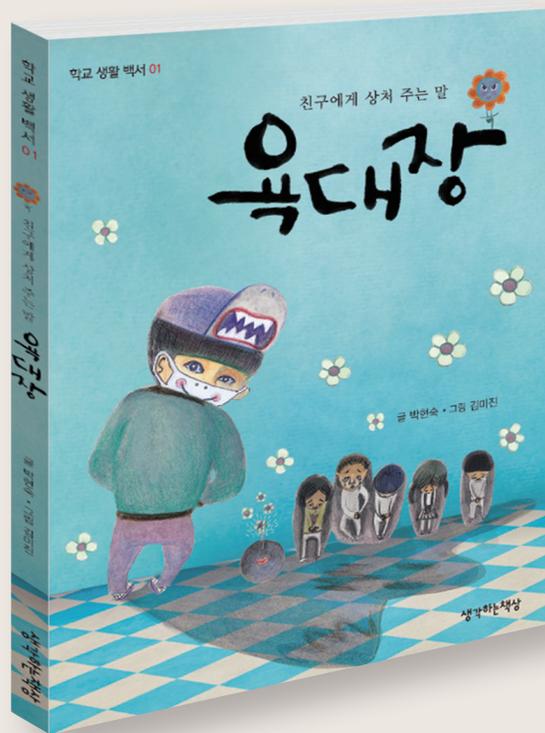


국어활동 : 독서단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용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 **욕 대장**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 생각하는책상 | 144쪽

독서 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 차시별 수업 계획 예시

단계	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독서 준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기 계획 세우기 _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_읽을 책 정하기 _책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_표지 _책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_차례 	
2	독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_읽기 방법 정하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_국어사전을 활용하며 책 읽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_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 	
3	독서 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 나누기 -책 내용 간추리기 _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후활동지 _어휘 익히기 _독해력 기르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후활동지 _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_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하기 _독서 활동 돌아보기 _더 찾아 읽기 	

▣ 교육과정 내용 요소

- 읽기 : 중심 생각 파악, 내용 간추리기, 경험과 느낌 나누기
- 쓰기 : 문단 쓰기, 자신의 생각을 짜임새와 조리가 있게 쓰기
- 문학 : 인물-사건-배경,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표현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표지 탐색하기

<욕대장>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욕대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욕 대장, 아름다운 말 대장이 되다!

우리 조상들은 ㉠'혀 아래 도끼 들었다.'고 하여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입게 되니 말조심하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좋은 말'이라는 격언처럼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지요.

요즘 아이들의 말이 지나치게 거칠어져 많이들 걱정합니다.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할수록 늘게' 마련이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른들 눈으로만 고운 말, 바른 말을 강요한다고 아이들 말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① 이 내용에서 속담 ㉠과 격언 ㉡의 뜻을 찾아 쓰세요.

⇒ ㉠ :

⇒ ㉡ :

② 이 내용에서 말은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1

다음은 <욕대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명준이는 큼큼거리며 목을 가다듬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소리를 바라봤다.

- 뺨이 불그스름해지는 것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 같았다.
- 입술이 부르트도록 매운 닭꼬치를 호호거리며 먹는 게 참 재미있거든요.
- 멍이 드는지 온몸이 육신거리기도 했다.
- 단체 채팅 방에서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저는 제가 꼭 물에 젖어 마구 찢어지고 몽그러진 종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가민이는 정말 똥똥했다. 얼굴이 ㉠처럼 크고 넓적했다. 그래서 그런지 눈은 ㉡처럼 작았다.

‘울트라 똥녀다.’ / 수진이는 생각하며 혼자 킁킁거렸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조금 붉다.
- ② 살가죽이 겉으로 두둑하게 되고 터지다.
- ③ 썩거나 지나치게 물러서 본모양이 없어지게 되다.
- ④ 머리카락이나 상처 따위가 자꾸 빠지는 듯이 아파 오다.
- ⑤ 목소리를 고르게 가다듬으려고 기침하듯이 자꾸 소리를 내다.

2) (나)에서 ‘가민이’의 ‘얼굴’과 ‘눈’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지 다음 <보기>에서 찾아 ㉠과 ㉡에 쓰시오.

[보기]

곰보빵에 뚫린 구멍 둥근 쟁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덩어리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2

다음은 <욕대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내가 상대방에게 장난으로 재미로 욕을 하고 ()를 쓰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언어폭력이에요.”

- “그거 우리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 준 ()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 강선이는 복도를 걸을 때도 한쪽으로 걷는 법이 없었다. 가운데로 ()를 치며 걸었다.
- 가만 보니 댓글에는 똑같은 점이 하나 있었다. ()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 큰 ()에 꺾꺾 눌러 담아도 넘칠 정도로 욕을 해 댔다.

(나) · 수진이는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점심 급식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릴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 조금 전까지 엄마 목소리로 찌렁찌렁 울리던 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최신식 : 가장 새로운 방법이나 격식.
- ② 높임말 :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
- ③ 소쿠리 :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 ④ 활개 : 사람의 어깨에서 팔까지 또는 궁둥이에서 다리까지의 양쪽 부분.
- ⑤ 비속어 : 예절에 어긋나게 대상을 낮추거나 품위 없이 격이 낮고 속된 말.

2) (나)에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으시오.

- ㉠ 매우 조용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복잡해서 걱정이 태산처럼 크다.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1. 재미있잖아!

다음 <욕대장>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걸 언어폭력이라고 하지요. 사람을 때리는 폭력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면 언어폭력은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에요. 몸에 난 상처는 치료받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몸에 난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가고 치료도 어려워요.”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명준이 고개는 점점 아래로 향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장난으로 재미로 욕을 하고 비속어를 쓰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언어폭력이에요. 명준이가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소라에게 ‘개예쁘다’라고 말했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라는 울 만큼 그 말이 기분 나빴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언어폭력이에요.” / 명준이는 뜨거워지는 목덜미를 손으로 문질렀다.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해요. 거친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말에 품위가 있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은 비록 못생긴 얼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멋지게 보이는 거랍니다.” / 선생님 목소리가 교실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1) 윗글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언어폭력’의 의미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고, 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 의 는 몸에 난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가고 도 어려움
- 자신이 상대방에게 장난으로 재미로 을 하고 를 쓰더라도 상대방이 나쁜 것

2) 다음은 ‘말은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사람을 쓰시오.

<input type="checkbox"/> ㉠ :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 : 비록 못생긴 얼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멋지게 보임
--	---	--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2. 울트라 똥녀는 나쁜 몸매 / 3. 애바샘! 나 세 보이죠?

다음 <욕대장>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가민이 보고 나쁜 몸매, 나쁜 얼굴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가민이가 똥똥해서 나쁜 몸매라고 하고 얼굴이 못생겨서 나쁜 얼굴이라고 해요.”

휴대전화를 찾아서 좋은지 민성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쁘다는 말은 마음과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처음 시작했나요?” / “수진이에요.”

(나) “너희들 강선이가 욕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할 때 세 보였
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봤다. / “아니요. 그런 욕을 얻어먹을까 봐 걱정되었어요.
욕을 먹으면 창피하잖아요. 선생님처럼 우울하고 슬퍼져요.”

또 보민이가 나섰다. / “그래. 말을 거칠고 험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나를 강하고 세계 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말의 힘은 욕이
나 거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위해 주며 위로를 주는 말이
정말 힘이 센 말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진짜 센 사람이
되는 거야. 김강선, 알았어?” / 선생님은 강선이 손을 힘껏 잡았다.



1) (가)에서 ‘수진’이 ‘가민’을 보고 ‘나쁜 몸매, 나쁜 얼굴’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와 같은 말을 사용했던 경험을 써 보시오.

2) (나)에서 ‘선생님’이 말한 ‘정말 힘이 센 말’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4. 문제없다니까, 왜 그래?

5. 다리를 절룩거리니까 맛없을 거야

다음 <욕대장>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말에 왜 아무 말도 안하냐고, 새끼야…….” / 동진이는 이번에는 나에게 쉬지 않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동진이에게 수없이 들어본 욕도 있었고 오늘 처음 듣는 욕도 있었다. 대체 어디서 저런 욕을 배우는지 모르겠다.

나는 두 귀를 꼭 막고 싶었다. 동진이가 하는 욕이 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동진이 욕을 들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쓸모없는 아이가 되는 것 같다. 곧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죽어야 할 것 같기도 했다.

(나) “다리를 저는 아줌마가 만든 닭꼬치는 분명 맛도 없을 거야. 큰 사거리에 있는 분식집으로 가자.” / 용호는 수빈이 손을 잡아끌었어요. / “절룩거리는 아줌마가 만들면 맛있어?” / “당연하지.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닭꼬치가 맛있겠어? 그리고 더럽기도 하고.” / “다리를 절룩거리면 더러운 거야?” / “당연하지.”

(다) “새깜둥이, 새깜둥이. 너희 나라로 가.” / 용호는 선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놀리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선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 “우리 아빠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지만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야. 여기가 우리 나라야.”

1) (가)에서 ‘동진이’의 욕에 대한 ‘나’(호철이)의 반응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동진이가 '나'에게 쉬지 않고 욕을 하기 시작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두 귀를 꼭 막고 싶었고, <input type="text"/> ▪ '나'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쓸모없는 아이가 되는 것 같고, <input type="text"/>
----------------------------	---	---

2) (나)~(다)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잘못 사용한 말과 상황을 쓰시오.

(나)	
(다)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6. 태풍과 왕눈이 만세

다음 <욕대장>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헉! 장수는 또 가슴이 덜컥거렸다. 장수가 초등학생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얼굴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말이다. / 장수는 댓글을 읽고 또 읽어 봤다. 가만 보니 댓글에는 똑같은 점이 하나 있었다. 높임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 내가 높임말을 써서 초등학생인 걸 알았구나.’ / 장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장수는 그날부터 댓글을 달 때는 절대 높임말을 쓰지 않았다. 욕도 마구마구 썼다. 신기하게도 욕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남의 험담도 하면 할수록 더 신이 났다. 꾸며 낸 말도 자꾸 하다 보니 진짜처럼 느껴졌다.

(나) “아이고, 할 일 없는 것들. 왜 남의 일에 그렇게들 관심이 많아. 그리고 남의 일을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려고 하나 몰라.”

아빠가 혀를 꼴꼴 찼다. / “에이, 형님. 그거는 형님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별로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콧방귀를 뀌어 대던 삼촌이 말했다. / “그렇다고 그렇게 얼굴도 마주 보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욕을 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괴롭혀?” / “형님, 누군지 모르니까 막 말해도 되는 거지요. 더 좋은 거…….”

1) (가)에서 ‘장수’가 댓글을 달면서 잘못 사용한 말의 표현과 내용을 모두 쓰시오.

⇒ ■ 표현 :

■ 내용 :

2) (나)에서 ‘삼촌’의 말에 나타난 생각을 비판하는 말을 써 보시오.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7. 나는 재수 없는 아이도 미운 아이도~

다음 <욕대장>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날 오후부터 민지는 단체 채팅 방에서 나지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 4학년 5반 단체 채팅 방이 꼭 나지를 따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같았다. / 민지는 단체 채팅 방에 다른 반 아이들도 초대했다. 나지가 재수 없고 선생님에게 애교를 떨어 칭찬받는다는 소문이 이제 다른 반까지 퍼졌다. 나지는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통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 나지는 참으려고 했다.



- 나지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다. 아빠도 없고 할머니와 둘이 살아.

하지만 이 말은 참을 수 없었다. 나지는 엄마 아빠 얘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이다.

(나) 나지는 그게 끝인 줄 알았다. 새 휴대전화를 사 주면 단체 채팅 방에서 나지를 괴롭히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민지는 절대 나지를 놔주지 않았다. 나지가 집에 있어도 놀이터에 있어도 아이들은 채팅 방에서 나지를 질질 끌고 다녔다.

“휴우.” / 나지는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나지는 자신을 칭찬한 선생님마저 원망스럽고 미웠다.

1) (가)에서 ‘나지’에게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2) (나)에서 단체 채팅 방에서 괴롭힘을 당한 ‘나지’의 반응을 쓰시오.

⇨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8. 엄마보고 바보라니?

다음 <욕대장>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똥줄은 바보라는 말이고요, 잉여킹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찐찌는 덜 떨어진 사람이고요.” / 동호 형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안습은?” / “안구에 습기 찬다는 뜻으로 눈물이 난다는 말이에요.”

“기막혀.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니? 누가 그런 말을 하니?”

엄마는 주방으로 가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왔어요. / “연예인들도 텔레비전에 나와 많이 쓰고요. 아이들도 거의 다 써요. 그런 말을 모르고 쓰지 않으면 유행에 뒤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을 써야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요.”

(나) “그런데 서준이한테 엄마가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많이 나쁘겠지요. 슬프기도 하고요. 세상에 아들이 엄마한테 바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랬다는 거 알아. 하지만 서준아. 말은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만약 엄마가 아니고 선생님한테 그랬다고 생각해 봐.”



1) (가)에서 네모로 표시한 말을 사용하는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 도 텔레비전에 나와 많이 쓰고, 도 거의 다 쓰는 말임.
- 그런 말을 모르고 쓰지 않으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써야 도 함.

2) (나)에 나타난 ‘엄마’의 말을 바탕으로 ‘서준이’의 잘못을 쓰시오.

⇨



욕 대장 (초등 4학년)

생각하는책상 |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정답과 해설

1쪽	<p>(예시답안) 1) 욕을 잘하고 많이 하는 욕대장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p> <p>2) 모자챙에 뽀족한 이빨이 있는 모자를 쓰고, 웃는 입이 있는 마스크를 한 남자아이가 뒤돌아보고 있다. 그 아이의 그림자에 아이들이 울거나 고개를 숙이며 좌절하고 있다.</p> <p>3) ① ㉠ :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입게 되니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 ㉡ :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다. ② 말은 할수록 늘고 거칠어지게 마련이다.</p>
2쪽	<p>1) ⑤, ①, ②, ④, ③ 2) ㉠ : 둥근 쟁반, ㉡ : 곰보빵에 뚫린 구멍</p>
3쪽	<p>1) ⑤, ①, ④, ②, ③ 2) ㉠ : ㉡, ㉢ : ㉣</p>
4쪽	<p>1) 말, 말, 마음, 상처, 치료, 욕, 비속어, 기분</p> <p>2) ㉠ 거친 말을 쓰는 사람 / ㉡ 말에 품위가 있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는 사람</p>
5쪽	<p>1) (예시답안) 텔레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큰 인기를 얻은 노래를 부르며 멋지게 춤추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의 리더가 춤추는 모습이 크게 화면에 나오자 '정말 착한 얼굴에 착한 몸매네'라고 말한 적이 있다.</p> <p>2)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위해 주며 위로를 주는 말</p>
6쪽	<p>1) • ㉠ : 동진이가 하는 욕이 '나'의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음 • ㉡ : 곧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죽어야 할 것 같기도 했음</p> <p>2) • (나) : 다리를 절룩거리는 아줌마가 만든 닭꼬치는 맛이 없고 더럽다고 말한 것 • (다) : 혼혈아인 선미에게 새깁둥이라고 부르며 너희 나라로 가라고 말한 것</p>
7쪽	<p>1) • 표현 : 절대 높임말을 쓰지 않았고 욕도 마구마구 썼음 • 내용 : 남의 험담과 꾸며 낸 말을 자주 썼음</p> <p>2) (예시답안) 삼촌이 인터넷에서는 누군지 모르니까 막 말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아빠의 말처럼 남의 일을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도 서로 예절을 지키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8쪽	<p>1) 그날 오후부터 민지는 단체 채팅 방에서 나지를 따돌리기 시작했음</p> <p>2) 나지는 한숨을 내쉬었고,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으며, 자신을 칭찬한 선생님마저 원망스럽고 미웠다.</p>
9쪽	<p>1) 연예인들, 아이들, 유행에 뒤지는, 멋지게 보이기</p> <p>2) 말은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서준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p>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지혜발전소

**생각하는
책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00 서울산업진흥원 5층11호
대표전화 : 070-4253-4935 | 편집부 : 02-338-4935 | 팩스 : 02-3153-1300 | E-mail, thinkingdesk@naver.com